

TEDTalks, Gavin Pretor-Pinney

Cloudy with a chance of joy

---

구름. 사람들이 구름에 대해 얼마나 많이 불평하는지 아시나요? 구름에 대한 평판은 나쁩니다. 생각해보면, 영어는 구름을 부정적인 것과 결부시켜왔습니다. 우울하거나 축 처진 사람은, 구름 밑에 있다고 표현합니다. 또 나쁜 소식이 있을때면, 지평선에 구름이 있다고 하죠. 하루는 제가 어떤 신문 기사를 읽었는데요. 인터넷 상에서 컴퓨터 프로세싱에 관련된 문제에 대한 기사였어요. 제목은 "구름 (인터넷 상 가상의 저장공간) 위의 먹구름"이었습니다. 구름은 누구나 사용하는, 비관과 절망을 나타내는 은유적 표현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구름이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단지 그 아름다움을 모를 뿐입니다. 왜냐하면 구름은 어디에나 있으니까요. 아주 흔해서 사람들이 구름을 알아채지 못하는지도 모릅니다. 아름다움을 놓치기도 하지만, 해를 가리기 전까지는 구름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구름을 방해물로 생각하기도 하죠. 귀찮고 짜증나는 장애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선 말도 안되는 엉뚱한 생각으로 빠져들곤 하죠. (웃음) 하지만 사람들에게 질문하기를 멈춘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름에 대해 묘한 애정이 있음을 인정할 것입니다. 그건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애정같은 젊은 시절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자, 여기 계신분들 중 어렸을때 구름을 보면서 형태를 찾아내려고 했던 기억이 없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몽상의 대가였던 시절에 말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극작가 아리스토파네스는 구름을 게으른 사람들의 수호여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천오백여년 전에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가 무슨말을 하는지 알 수 있을것입니다. 요즘 우리 어른들은 우리의 상상력이 산들바람을 따라 떠돌아다니도록 내맡기기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게 안타깝습니다. 저는 우리가 좀 더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좀 더 기꺼이 구름뒤에서 쏟아져 나오는 아름다운 햇빛을 보며 "잠깐, 저건 살사춤을 추는 고양이 두 마리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웃음) (손뼉) 아니면 쇼팽센터 저 위로 있는 크고 하얗고 폭신한 구름을 보며 히말라야 설인이 은행을 털려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야겠죠. (웃음) 마치 60년대에 정신과 의사들이 환자에게 보여주곤 하던 잉크 얼룩이 진 이미지의 자연관 같습니다. 여러분이 구름을 보면서 형태를 볼 수 있다면 정신 분석 청구서 비용을 아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사랑에 빠졌다고 해봅시다. 좋습니까? 위를 올려다 보면 뭐가 보이죠? 그렇죠? 아니면 반대쪽일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은 얼마전에 애인한테 차였습니다. 어디를 보나 키스를 하는 쌍이 보입니다. (웃음) 여러분은 어쩌면 실존주의적 비관의 순간을 겪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 지평선에 저승 사자가 있군요. (웃음) 어쩌면 옷을 벗고 햇빛을 즐기는 사람을 볼 수도 있겠죠. (웃음) 그게 무슨 뜻일까요?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잘 모르습니다. 한 가지 제가 아는 사실은 여태까지 구름이 얻은 나쁜 평판이 아주 불공평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구름을 옹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때문에 몇년 전 제가 '구름 감상 협회'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전세계 100여개 나라에서 수만 명의 회원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여드리는 이 사진들은 모두 회원들이 보내준 것들입니다. 이 협회는 사람들에게 구름이 불평할 대상이 아님을 알려주기 위해 있습니다. 오히려 구름은 사실 가장 다양하고, 좋은 생각을 떠올리게 하는 자연의 시적 면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끔씩 머리를 구름속에 두고 산다면, 현실에 발을 딛고 사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종류의 구름을 보여드리면서 그 까닭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진으로 시작해 보죠. 솜털 모양의 권운입니다. 한 타래의 머리카락이라는 라틴어를 따서 이름이 만들어졌죠. 이것은 대류권의 상류로 부터 내려온 빙정으로만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빙정이 떨어지면서 여러 대기층을 지나며 다양한 바람을 만나게 됩니다. 속도가 빨라지기도 하고 느려지기도 하면서 붓칠을 한 모양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붓칠 형태는 미류운이라고 합니다. 또한 저 위 바람들은 매우 매우 거칠기도 합니다. 시속 320 km에서 480 km에 달하기도 하죠. 이 구름들은 내려가면서 폭발을 하지만 이렇게 내려와서는 대부분의 구름들처럼 우아하고 천천히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구름에 맞추려면 속도를 늦추고 가라앉혀야 합니다. 날마다 하는 명상과 같습니다. 이것들은 흔한 구름이죠. 조금 보기도문 이 렌즈 구름은 어떤가요? 비행 접시처럼 생긴 렌즈 구름 말입니다. 이 구름들은 산악지역에서 형성됩니다. 바람이 산을 거처가기 위해 솟아 오르면 바람이 불어가는 방향으로 물결 같은 길을 만듭니다. 보이지 않는 공기의 물결로 된 산마루에 구름이 맴돌면서 비행 접시 같은 형태를 보이죠. 초기에 미확인 물체를 찍은 흑백사진의 일부는 사실 렌즈 구름입니다. 사실이에요. 좀 더 희귀한 것은 미류운 구름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대기층이 아주, 아주 차가운 물방울로 이루어져 있고, 그 중 일부가 얼어붙기 시작해서 이 얼어붙은 과정이 바깥으로 연쇄 반응을 일으키고 빙정이 폭포처럼 아래로 떨어지면서 아래로 해파리의 촉수 같은 모습을 하게 됩니다. 아주 드문 형태인데 켈빈-헬름홀츠 구름입니다. 멋진 이름은 아니죠. 이름을 다시 지어야 됩니다. 이것은 잇달아 부서지는 물결처럼 보이는데 바람이 깎아내어서 그렇게 됩니다. 구름층 위와 아래에 있는 바람이 차이가 크게 나서 중간에서, 또 그 사이에서, 이렇게 물결치는 공기가 생기고 이 둘의 속도 차이가 적절하면 물결치는 곡선의 꼭짓점이 아름답게 부서지는 물결같은 소용돌이 위로 말려들죠. 좋습니다. 이것들은 권운보다 드문 구름이지만 그렇게 드문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면 곧 보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극적인 것은 아니지만 구름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사는 곳 둘레에서 보게 될 겁니다. 구름은 자연이 보여주는 최고의 평등주의자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하늘을 보는 멋진 전망을 가졌으니까요. 그리고 이 구름들, 보기 드문 구름들은 이국적인 풍경을 날마다 볼 수 있음을 우리한테 일깨워 줍니다. 활발하고 호기심에 찬 마음에는 놀라고 경이롭게 느끼는 것보다 더 영양가 있고 더 자극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우리가 모두 여기 TED에 있는 게 아닐까요? 하지만 여러분은 놀라기 위해 익숙한 곳을 떠나 세상 저 편으로 달려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밖으로 나가 날마다 흔히 일어나는 일에서 너무나 일상적이라 모두가 놓쳐버리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보세요. 사람들이 대부분 놓치지 않는 구름은 적란운입니다. 적란운은 천둥과 번개, 우박을 만들죠. 이 구름은 아주 거대한 모루 같은 모양위로 퍼져서 대기권속으로 16 km나 퍼져나갑니다. 적란운은 대기의 거대한 구조를 나타내 주지만 그 아래에서는, 대기를 움직이는 힘세고 본질적인 힘의 화신입니다. 거기 있다는 것은 몰려가는 비와 우박과 연결되어, 대기와 연결된 느낌을 준다는 거죠. 우리는 이 공기의 바다에서 살아가는 생물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늘 아래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

